포근한 날씨 불구 독감·감기 환자 급증

내과·소아과 등 이달중 환자 2배 가까이 늘어

바이러스 B형서 A형으로 바뀌며 대유행 조짐

광주 첨단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인(40)씨는 "직원 8명 중 3명이 감기로 결근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 겨우겨우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늦겨울에 독감과 감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정은 물론 직장에도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8도를 오르내리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바이러스 유형을 바꿔가며 유행하고 있다.

독감과 감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유치원에는 결석 아동이 속출하고, 직장이나 유통업체 각종 매장에도 직원들이 병원을 찾느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종합병원과 소아과, 내과 등에 따르면 2월 들어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1월에 비해 50~100%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중 독감 환자는 지난해 말에는 B형이 많았다가 올 초부터는 A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B형은 복통·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A형은 고열과 온몸이 쑤시는 몸살 증상이 특징이다.

특히 요즘 독감을 주도하는 A형은 상대적으로 변이가 많아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달 전에 B형 독감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최근 A형 독감에 걸린 경우가 상당수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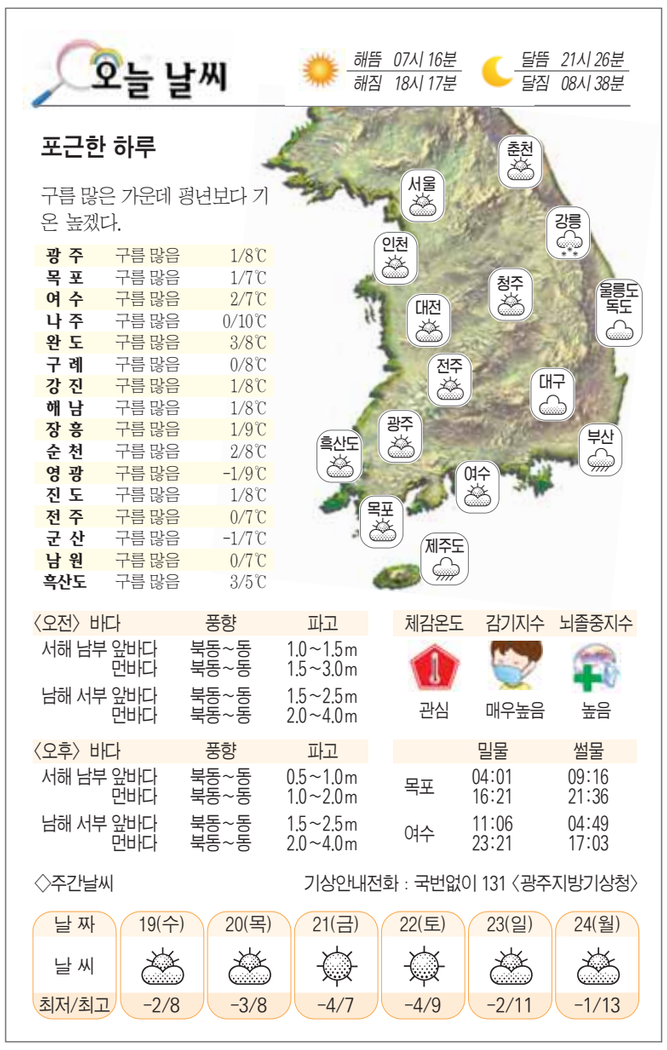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요일에 문을 여는 광주지역 몇몇 어린이 전문병원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부분 2~3시간을 대기하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기다리다 지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마저 있는 형편이다.

세계로병원은 지난달 하루 평균 약 20명의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2월 들어서는 30명 정도가 내원하고 있으며, 이중 신종플루 환자도 매일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세계로병원 박상현 원장은 "독감에 걸리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푹 쉬면서 면역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접촉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은 "전달에 비해 배 이상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었다"면서 "문제는 3월부터 꽃가루가 발생하면 알레르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 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가동 기약없는 한빛원전 5호기

사망사고·정기검사로 차질

한빛(영광) 원전 5호기 가동 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방수로 정비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한 데 이어 가동 부품 시험성적서 조사가 장기화되면서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해 12월 12일 제9차 계획예방정비 차원에서 발전시설 점검을 한 후 지난 1월 19일 발전을 재개하려 했으나 여태껏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다.

우선,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진행된 방수로 점검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발전 재개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계획예방정비 중단을 통보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던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인 한전KPS측에 과태료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도 발전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한빛원전 5호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자로 보호계통 및 안전설비계통 등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통상 정기 검사는 1~2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검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달라 정확한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리고기 걱정말고 먹읍시다"

광주시 경제산업국 직원 80명이 17일 북구 유동 '오리의 거리'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실·국별로 오는 28일까지 오리고기 시식회를 갖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법 "한의사가 레이저 기기 시술땐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피부의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 진료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학의 이론·원리를 적용하거나 응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료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된 서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 그친 것이라면 한의사에게 허용된 진료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원에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 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해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목숨 걸고 건너는 순천 철도 건널목

지난해도 2명 사망 등 사고 잇따르자

시민들 입체교차로 건설 대책 마련 촉구

순천 지역 철도 건널목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예산 흘대 및 지방자치단체·철도청의 관심 부족이 겹치면서 빚어진 것으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건널목 입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6시 20분께 순천시 덕암동 한 마을 앞 철길 건널목에서 김모(66)씨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열차는 김씨와 충돌한 후 150m가량 지나친 뒤에야 멈춰섰으며 시신은 크게 훼손됐다. 기관사는 "한 남성이 철길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현장에서 김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과 자전거,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뒤이어 오전 8시께 장성군 황룡면 옥정역 부근에서 박모(48)씨가 KTX 열차에 치여 왼쪽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열차는 역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중이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구간의 경우 KTX가 지나다니는데도 입체화 교차로가 아닌, 평면 건널목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관리인 없이 차단기만 작동하는 구간도 있어 매년 안전 사고 위험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해만 순천에서 2명이 열차사고로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입체교차로 건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철도청 등이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법원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 불륜 단정못해"

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여)씨 부부는 B(여)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이 B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